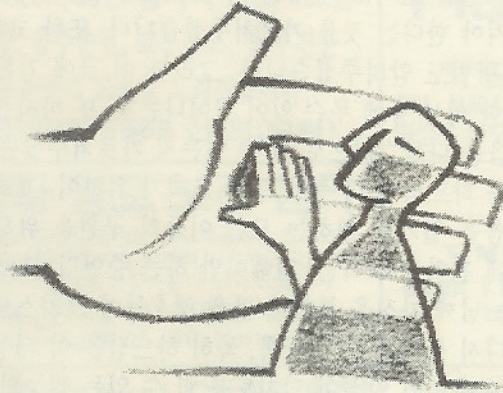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2주일 하느님 자비 주일
제27권 20호 (다해) 2007.4.15

[묵상]



노래

당신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마음을 활짝 열고 온몸으로 받은

영원하신 그 사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포퓰한 믿음의 힘줄.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현령회 (장례시 연락처) : (213)458-0396

수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주일학교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백삼위 신앙학교 5월1일 제4단계 개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복사단 모임 (첫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교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형회장 : 유철희 바오로 (310)320-3697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김금란 수산나, 김홍식
	(생) 조지 가보라, 민영준 마르코, 방제인 이다마리아 방영화 요세피나, 박삼근 가스팔, 신토니 안토니오 강정현 시몬, 한신 라파엘, 박지혜 수산나, 윤선영 리드비나 정현주 세실리아
주 일 낮 미사	(연) 조오예 테레사, 정윤 요셉, 김창배 파스칼, 김형진 김인영 베드로, 이현호 요한, 데니스웨버, 이영자 마리아 양갑순 마리아
	(생) 손석조 마리아, 오일순 헬레나, 이근모 마리오 이종민 요셉, 안준환 미카엘, 안성진 자슈아, 이진향 아베스 김서현 요한, 이윤호 베네딕도 & 강혜중 크리스티나 신토니 안토니오, 김셋별 요세피나 & 한기선 요셉 이석제 베드로 가정, 김선영 스테파니아 가정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5,12-16

화답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전례성가 70 부활 제2주일>
○이스라엘 가문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아하론의 집안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나를 밀고 때밀어 쓰러 쓰러려 했어도
주님은 나를 도우셨도다.
주님은 나의 힘 내 노래이시니
당신이 나를 구하셨도다.◎
○집짓는 자들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이루신 일이옵기에
우리 눈에 놀랍게만 보이나이다.◎

제 2독서 묵시록 1,9-11 나.12-13.17-19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 요한 20,19-31

영성체송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입당	162	168
봉헌	258	167, 268
성체	370	309, 287
파견	169	166

✠ 거룩한 미사에 대한 카탈리나의 증언 ✠

<이번 주일부터는 '거룩한 미사'에 대한 카탈리나 리바스의 증언을 게재합니다. 이 증언은 2004년 엘살바도르의 산 빈센트 주교의 공인을 받았으며, 카탈리나 리바스 자매는 예수성심성체의 평신도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처음엔 묵주기도를 바치는 법을 알려주셨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교리수업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묵상하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고 복되신 어머니를 만나는 그 순간을 기쁘게 즐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또한 고해성사를 잘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기록하는 대로, 거룩한 미사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미사를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한 '삶'으로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셨습니다.

이 글은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기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로 마음을 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제가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전해야만 하는 증언입니다. 또한 이 글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다시 불태울 수 있도록, 특히 하느님을 이 세상으로 오시게 하여 우리의 양식이 되시도록 할 수 있는 권능의 손을 가진 이들(사제들)이 그럴 수 있도록 쓰여 집니다. 또한 판에 박은 듯이 습관처럼 그분을 받아 모시는 것을 떨쳐버리고, 사랑으로 매일의 만남 안에 그 놀라운 기쁨을 소생시킬 수 있도록 쓰여 졌으며, 온 세상의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가장 위대한 기적인 성체 성사의 예식을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쓰여 집니다.

이 날은 성모 영보 대축일 전야였고, 우리 그룹의 사람들은 화해의 성사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기도모임의 몇몇 자매들은 고해성사를 받지 못해서 다음날 미사 전에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성당에 도착했을 때, 조금 늦었는데, 벌써 대주교님과 신부님들이 제의방에서 나오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때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영혼을 감미롭게 하는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배움의 날이고, 네가 증언해야 할 것이기에, 나는 네가 주의를 집중하기를 바란다. 오늘 경험하는 모든 것을 너는 온 인류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나는 깊이 감동했고, 마음을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처음 알아챈 것은 멀리서 들리는 듯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의 합창이었습니다. 순간 그 음악소리는 가까워지더니, 그 다음엔 다시 멀리 지나갔습니다. 바람 소리처럼 말입니다.

대주교님이 미사를 시작하셨고, 곧 참회 예식을 할 때, 복되신 동정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네 잘못에 대해, 마음 가장 깊은 데서부터, 진심으로 그분께 용서를 청하여라. 그렇게 해서 너는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에 합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확실히 은총 상태일거야. 어제 저녁에 성사를 받았으니까."

◆ 카탈리나 리바스 다음 주에 계속

예수님, 하느님

외모로 볼 때 한 평범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무엇이냐 추측과 억측들을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혹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이지만 베드로를 필두로 한 사도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정도면 되었을까요?

요한 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 생애의 거의 끝에서 예수님 정체에 대한 유대인들의 실언 하나가 언뜻 스쳐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의 죄명으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변하십니다. 그 때 그들은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소" (10,33) 하고 얼떨결에 말합니다. 그들은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 정도가 아니고 바로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내면의 소리에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사의 복음 말씀은 같은 요한 복음의 20장에서 발췌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당일, 토마스를 뺀 나머지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습시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토마스는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 부활을 믿을 수 없노라고 버텼습니다. 그 다음 주일인 바로 오늘, 토마스로 같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토마스에게

당신의 심장을 찔렀던 창구멍과 손발에 있던 못 자국을 만져 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 의심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위대한 진리 하나를 계시하시니, 토마스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0,18)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느님의 아드님이실 뿐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셨습니다. 증거를 보지 않고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만, 주님은 사람들의 의심을 통해서도 위대한 진리를 알려 주시는 참으로 자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이 진리는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우선,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어내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 주신 것을 큰사랑으로 알고 고마워해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셨다는 구원의 사랑은 창조의 사랑보다 더 큼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더욱 크게 감사합니다. 마치도 부모님께서 우리의 불치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장기를 떼어 주시고 당신은 돌아가셨다는 것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 황송한 진리가 오늘 토마스 사도의 고백으로써 밝혀진 셈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까지 바치신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 백남용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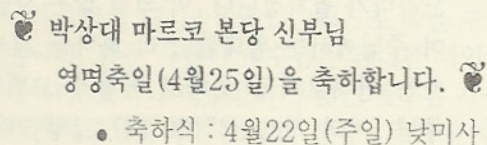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최진수 에우세비오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변해경 율리안나	박진숙 엘리사벳
제물봉헌자			토 북 1,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우경석 요한	최영신 프란치스코	오세원 아타나시오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황지영 안젤라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칼슨 2, 4반

- ◆ 성모의 밤 : 5월5일(토) 오후 8시

 - 각 단체 및 개인 꽃 봉헌과 초 봉헌 있습니다.
 - 문의 : 수녀님
 - 이날 토요일 특전미사는 오후 7시에 있습니다.



- ◆ 요셉회 모임
 - 오늘 주일 오후 1시, 회의실
- ◆ M.E. Sharing
 - 4월20일(금), 오후 7시, 사제관
- ◆ 4월 사목 상임위원회
 - 4월22일(주일), 오후1시, 강당
 - 각분과위원회 회의록 제출 : 4월18일(목)까지
- ◆ 제10회 김수환추기경배 (가톨릭 방송사 기금모금) 골프대회
 - 4월24일(화), 오후 12시30분, Oak Quarry Golf Club
 - 연락: 최기남 야고보 569-3940
- ◆ 전례부 부활 파티 및 평가회
 - 4월29일(주일), 오후5시, 강당
 - 해설자, 독서자, 전례봉사자, 복사단, 청년회 전례봉사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 4월29일(주일), 오후 1시, 강당
 - 자격: 7학년 이상 모든 학생 ● 참가비 : \$1
 - 신청마감: 3월18일(주일)

- ◆ **본당 울프레아 모임**
 - 4월29일(주일), 오후 1시, 유아실 (점심제공 합니다.)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D.) 참가자/부모 모임**
 - 4월29일(주일), 오후12시, 강당
 - 참가비 잔액 납부 마감: 4월29일(주일)
- ◆ **St. Margaret Mary 본당 Art Exhibition**
 - 4월29일(주일), 오전 9시~오후 2시30분
 - St. Margaret Mary Church, Hegathy Hall
 - 저희 교우 김선제 바오로, 김윤진 카타리나께서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많은 교우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 관람자들의 Donation은 전시회비용을 제하고 Homeless Program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 ◆ **요셉 안나회 부활맞이 온천 관광**
 - 4월30일(월), 출발 오전 8시, 성당
 - Elsinore 온천장
 - 회비: 회원 \$15, 비회원 \$25
 - 문의: 회장 이영희 카타리나 (310)944-2737
- ◆ **제58차 M.E. 첫주말: 5월4일(금)~6일(주일)**
 - 참가부부 : 성나호 요셉 & 은혜 실비아
이석호 라파엘 & 종미 카타리나
이경천 & 김기숙 엘리사벳
 - 첫 주말을 참가하시는 세 부부들을 위하여 M.E 가족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4 -

◆ 배론 청년 김치판매

- 청년회 기금마련을 위해 김치를 기증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판매 수익금은 청년 피정, 선택 참가자 보조 및 감사 헌금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 김치 1 Pack: \$10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4월15일: 토렌스 남 2반 (우거지 갈비탕 \$3)
- 4월22일: 신부님 영명축일 전신자 국밥 나누기 성모회, 소공동체 에서 봉사합니다.

남가주 소식

◆ 하원 결의안 121(H.Res.121) 지지 서명 계속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 하느님 자비의 축일 행사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2000년 4월 자비의 축일을 선포하시고 이 축일을 기념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윤희하셨습니다.

- 오늘 주일 오후 2시30분~4시30분
- 성바실 성당 회관 3535 W 6th St., L.A., CA 90020
- 내용: 하느님 자비심 기도, 성체 강복, 미사, 유해친구
- 문의: (213)389-3142

◆ 메주고리에 치유의 성시간

- 4월19일(목) 오후7시. 한국순교자 성당 (714)897-6510
- 4월 20일(금) 오후7시. 성 바실 성당
- 강론: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 (전 서울 대교구 옥수동 성당)
- 행사 주관: 평화의 모후 선교회

◆ 제9회 연중 Catholic Lobby Day

“평화를 원한다면, 정의를 위해 일하십시오.” - 교황 바오로 6세
 “정의를 원한다면, 생명을 옹호하십시오.” - 교황 요한 바오로2세
 가주 주교회의에서는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와 농부와 이민자들의 가족 생계 및 교육받을 권리 보장,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의사 자살 방지 법안(AB374), CA Dream Act(SB160) 법안 등에 대해 주의회에 가톨릭 신자들의 일치된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마련하고 많은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호소합니다.

- 4월24일(화) 오전9시~오후4시
- Blessed Sacrament 주교좌 성당, Sacramento
- 주관: 가주 주교회의 California Catholic Conference
- 참석자들을 위한 Bus제공 (213)637-7550

이번 주 단체 모임

요셉회	오후 1시, 회의실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강당
-----	-----------

소공동체 부장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3	정정숙 레아	정정숙 레아 791-5696 4/19(목) 오후7시30분
	4	권본경 율리아	형제반 1째 수 오후7시. 성당 자매반 3째 수 오후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오호순 모니카 782-9139 4/20(금)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렌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4/20(금) 오후 7시30분
	2	임진희 한나 720-7898	
	3	장주란 마리아 486-1982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Club.cyworld.com/103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365-2183	1	권병연 리디아 (소공동체 차장) 938-3255	권병연 리디아 938-3255
	2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 차장)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김윤진 카타리나 514-2143 오늘 주일 오후 6시
	2	김희복 아베스 326-2283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370-6589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2	김명재 아가다 541-3687	
	3	전애경 율리아나 541-5370	
	4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2007년 부활 메시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 11,25)

천에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부활을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교 신자란 한 마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모두 헛되며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은 쓸모없게 되고 인간의 삶은 결국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1코린 15,14 참조).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부활처럼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위대한 위인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만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는 모든 인간의 희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인의 부활에 대한 희망이며 보증이기 때문입니다(1코린 15,20-22).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처지에서도 실망하지 않게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고통은 허구가 아니며 처참하고 혹독한 실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에게 죄로 잃어버린 생명을, 어둠 속에서 빛을 다시 가져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만연해 있는 인간 생명의 경시 풍조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죽음의 세력에 대응하여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질병이나 자연재해, 경제적, 정신적 빈곤, 사회적 불의나 정치적 억압이건, 전쟁과 갈등에 의한 폭력이건 모든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쉽게 자살하거나 다른 이의 생명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쉽게 해치는 행동은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거스르는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의 허용 범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신앙인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톨릭교회는 인간 생명인 배아를 파괴하는 어떤 종류의 배아 연구도 반대하며, 경제적 논리가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률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에 지난 3월23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 안을 의결”한 것에 대하여 우리 가톨릭교회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가톨릭교회가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배아 역시 인간 생명이기며, 배아 파괴는 결국 살인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배아 파괴를 합리화하기 위해 배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일부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임신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는 것은 오랜 교회의 가르침이며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로서도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라고 해도, 인간 생명인 배아를 파괴하는 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일로써 윤리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배아복제 연구는 복제인간의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과학적 기술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인간성의 도덕적 가치를 충실히 실현하려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 생명을 수단으로 삼고 파괴하는 연구의 과학 기술적 진보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구는 생명위원회를 통해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난치병 치료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학계에서도 배아줄기세포 연구 대신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앞으로도 생명과학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인간에게 봉사하는 도구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며, 봉사하는”(생명의 복음, 5항) 사회가 되어 생명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배아라고 해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은 부활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일상생활과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신앙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부활하는 삶이 됩니다. 그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모든 사람의 희망과 빛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